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9. 21. ~ 9. 27.

전남농업정보

52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토마토, 애호박 재배의향 속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농식품부, 아랍에미리트와 할랄식품 분야 협력 본격 추진
세계로 가는 동양의 건강한 먹거리, 이번엔 러시아로!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버려지는 인삼 열매에서 사포닌 뽑는다
여름철 단경기 재배용 시금치 품종 선발

정책동향

약효 보증기간 지난 고독성 농약 반납하세요
농식품부,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해외 농업정보

농식품부,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2015. 9. 21)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기압골의 영향으로 25일에는 전라남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9~18도, 최고기온: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으며, 강수량은 평년(1~6mm)과 비슷하겠음

✿ 농작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토마토, 9~11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감소
- 애호박, 9월 출하량 작년보다 1% 감소 전망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배추 · 무

- 배 추 : 평년보다 낮은 6,000~7,000원/10kg으로 전망
- 무 : 평년보다 낮은 10,000~12,000원/18kg 수준으로 전망

▶ 양념채소 : 건고추 · 대파

- 건고추 : 전년(8,870원/600g)과 평년 동월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대 파 : 1,900~2,200원/kg, 중품은 1,700~2,000원/kg으로 8월 하순 대비 보합세가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 ▶ 여수 돌산갓김치 YTN의 명품 특산품에 선정, 홍보 협력키로
- ▶ '기차타고 멜론마을' 대통령상
- ▶ 화순군, 농업인 정보화분야 전라남도 최고 최다입상,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 아랍에미리트와 할랄식품 분야 협력 본격 추진
- ▶ 세계로 가는 동양의 건강한 먹거리, 이번엔 러시아로!
- ▶ “LG-aT Jazz Bar에서 한국의 감성을 맛보세요”
- ▶ 일본 토마토 수출 시장에 다시 켜진 청신호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9~10월은 월동 사료작물 파종시기
-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한다
- ▶ 땅심 높이는 풋겨름 작물, 9월 하순~10월 상순 파종하세요!
- ▶ 최고품질 벼 '대보' 이삭 팬 후 45일~50일째 수확하세요
- ▶ 버려지는 인삼 열매에서 사포닌 뽑는다
- ▶ 여름철 단경기 재배용 시금치 품종 선발
- ▶ 대서 감자, 눈 띄우기 기술개발!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약효 보증기간 지난 고독성 농약 반납하세요
- ▶ 국제농업박람회서 오감만족 수확체험을
- ▶ 농식품부,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120건 발굴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일본, 베트남산 화훼류 진출 활발
- ▶ 해외 곡물시장 현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지속적인 공급량 과잉과 달러화 약세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숏커버링으로 인한 강보합세를 보이며 마감함.
 - 옥수수 선물가격은 과잉공급과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함. 중국의 옥수수 수출판매 또한 부진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 대두 지역수확기가 도래가 가격에 하방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여짐. 날씨전망 또한 주로 건조한 날씨가 예보되어 대두 품질 또한 양호할 것으로 전망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 목 적 : 유기인증 농작물 재해피해 시 안정생산 도모
- 가입품목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46품목)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면적 중 유기농면적
-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피해 시 자담 보험료(20%) 전액지원
- 보상기준 :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에 따름
- 신청기관 : 시군, 농협 → 읍면동에 등록
- 가입기간 : 벼·고추 4~5월, 매실·마늘·차 10~11월(재해보험가입기준 참조)

▶ 꽃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개인 혹은 3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
- 접수기간 : 2015. 10. 12(월) ~ 10. 21(수)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 : 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10~20매(형식제한 없음), 요약서 A4 1매
- 시상내역 :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변경

- 변경내용 :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차등지원
- 2015년 기준 :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 178원

구 간	보험료부과점수	지 원 내 용	지 원 액
정률지원	1800점 이하	보험료의 28% (기존과 동일)	보험료의 28%
정액지원	1801~2500점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89,760원 정액지원
미 지원	2501점 이상	미 지원	0원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9. 2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9/21)	전주 (9/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420	41,073	↓ 6.2	↓ 3.1
	콩(백태)	35kg	137,000	137,000	137,000	142,000	193,250	↓ 3.5	↓ 29.1
	고구마(밤)	10kg	22,600	25,400	28,150	23,160	26,717	↓ 2.4	↓ 15.4
	감자(수미)	20kg	25,000	24,600	25,500	22,760	27,030	↑ 6.8	↓ 7.5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610	580	690	772	1,143	↓ 21.0	↓ 46.6
	양배추	10kg	6,300	6,500	6,950	4,620	9,143	↑ 36.4	↓ 31.1
	오이(다다키계통)	10kg	21,333	24,333	21,667	17,645	29,260	↑ 20.9	↓ 27.1
	애호박	8kg	16,000	17,000	10,350	11,520	22,110	↑ 38.9	↓ 27.6
	토마토	10kg	29,200	26,800	20,100	25,280	32,940	↑ 15.5	↓ 11.4
	무(고랭지)	20kg	8,400	8,000	12,200	11,560	15,647	↓ 27.3	↓ 46.3
	당근	20kg	32,800	32,400	29,800	57,440	44,737	↓ 42.9	↓ 26.7
	건고추(화건)	60kg	830,000	830,000	795,000	878,000	911,000	↓ 5.5	↓ 8.9
	풋고추	10kg	27,000	31,400	22,800	44,840	49,330	↓ 39.8	↓ 45.3
	마늘(난지)	10kg	47,000	45,400	46,000	33,400	35,833	↑ 40.7	↑ 31.2
	양파	20kg	28,000	28,000	28,100	10,520	17,477	↑ 166.2	↑ 60.2
	대파	1kg	1,870	1,850	1,940	1,196	2,114	↑ 56.4	↓ 11.5
	파프리카	5kg	26,000	30,800	14,250	31,000	32,657	↓ 16.1	↓ 20.4
	방울토마토	5kg	14,200	14,400	13,700	11,280	23,013	↑ 25.9	↓ 38.3
	수박	1개	11,000	11,400	15,450	9,120	13,517	↑ 20.6	↓ 18.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9/21)	전주 (9/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과 일 류	사과(쓰가루)	15kg	-	-	44,350	-	52,050	-	-
	배(신고)	15kg	41,600	38,000	31,250	32,440	46,903	↑28.2	↓11.3
특 용 작 물	참깨(백색)	30kg	530,000	530,000	531,500	521,600	557,250	↑ 1.6	↓ 4.9
	들깨	45kg	422,000	422,000	420,000	438,000	336,583	↓ 3.7	↑25.4
	새송이버섯	2kg	8,400	8,200	7,400	8,000	9,388	↑ 5.0	↓10.5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530	7,554	7,189	6,792	6,684	↑10.9	↑12.7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91	2,139	2,250	1,979	1,880	↑ 5.7	↑11.2
	닭고기	1kg	4,620	5,227	5,099	5,012	5,416	↓ 7.8	↓14.7
	계란(특란)	30개	5,712	5,749	5,773	5,910	5,691	↓ 3.4	↑ 0.4
	우유	1리터	2,547	2,547	2,547	2,547	2,357	↑ 0.0	↑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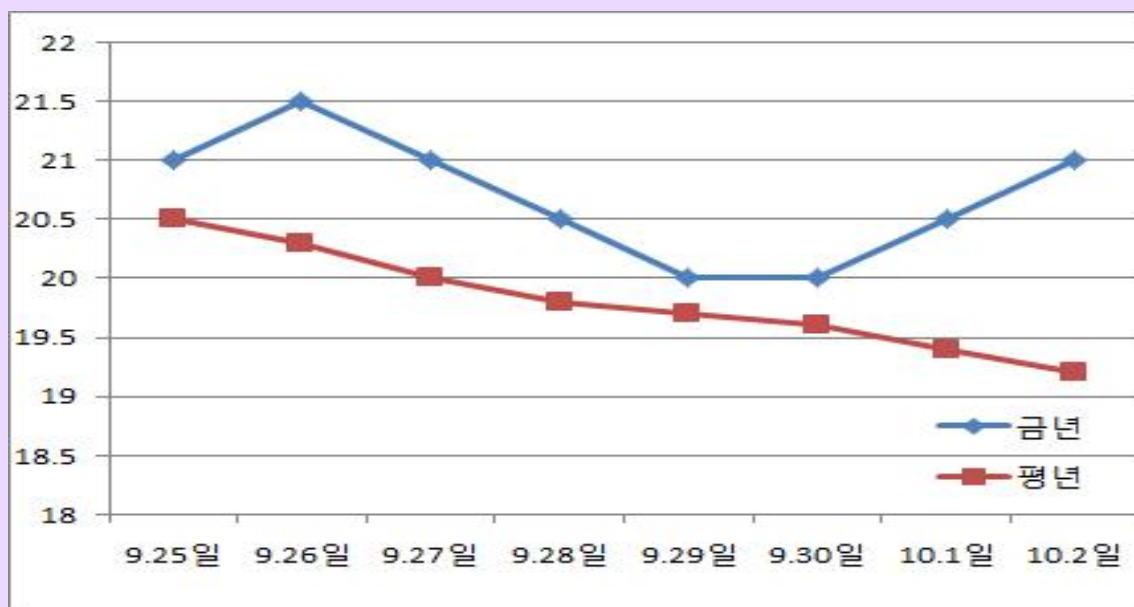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20.7	19.8	0.9	24.1	24.8	-0.7	17.3	16.1	0.0	2.8
9. 25.(금)	21	20.5	0.5	23	25.4	-2.4	19	16.8	-2.2	2.5
9. 26.(토)	21.5	20.3	1.2	25	25.2	-0.2	18	16.5	-1.5	1.6
9. 27.(일)	21	20	1	25	24.9	0.1	17	16.2	-0.8	1.7
9. 28.(월)	20.5	19.8	0.7	24	24.8	-0.8	17	16.1	0.9	3.1
9. 29.(화)	20	19.7	0.3	24	24.6	-0.6	16	16.1	-0.1	3.3
9. 30.(수)	20	19.6	0.4	24	24.5	-0.5	16	15.9	0.1	3.5
10. 1.(목)	20.5	19.4	1.1	24	24.5	-0.5	17	15.7	1.3	3.5
10. 2.(금)	21	19.2	1.8	24	24.4	-0.4	18	15.4	2.6	2.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토마토·애호박 재배 동향

□ 토마토, 9~11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감소

- 9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남 밀양, 진주에서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풋고추 등으로 작목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10~11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식비중이 높은 부산광역시에서의 정식면적 변화는 크지 않겠으나, 경북 구미, 경남 밀양, 충남 공주에서 작년 출하기 낮은 가격으로 인해 타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애호박, 9월 출하량 작년보다 1% 감소 전망

- 9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의령에서는 시설지원사업으로 하우스재배면적이 증가하겠으며, 충남 부여에서는 8월 정식이 9월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년 작황 부진으로 축성작형 출하를 조기 종료한 전남 광양과 경남 진주에서는 주 정식기인 10월에서 9월로 정식을 앞당길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전남 광양과 경남 진주에서는 9월로 조기 정식이 이루어지겠으며, 충남 공주에서는 10월까지 이루어졌던 정식이 9월에 종료되어 정식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정식면적은 정식 비중이 큰 경남 진주에서 9월로 정식을 앞당겨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 무

○ (배 추)

- 9월 배추 도매가격은 고랭지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6,000~7,000원/10kg으로 전망된다.

○ (무)

- 9월 무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10,000~12,000원/18kg 수준으로 전망된다.

양념채소 : 전고추 · 대파

○ (전고추)

- 평균도매가격은 전년(8,870원/600g)과 평년 동월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9월 화건 산지가격은 8월 하순(5,460원/600g)보다 높으나, 전년과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 파)

- 9월 상품 도매가격은 1,900~2,200원/kg, 중품은 1,700~2,000원/kg으로 8월 하순 대비 보합세가 전망된다.
특히 9월은 상품성이 좋은 강원지역 고랭지대파 출하가 증가하는 시기로 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여수 돌산갓김치 YTN의 명품 특산품에 선정, 홍보 협력기로

- 여수시YTN 간 돌산갓김치 새로운 판로망 개척 공동업무협약(MOU) 체결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8일 서울 YTN본사에서 지역대표 특산품인 돌산갓김치의 판로개척을 위해 YTN, (주)콜피아와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YTN이 (주)콜피아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전국 50개 지자체의 명품 특산품을 YTN에서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가 이뤄지게 된다.
- 이번 협약에는 여수시를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인 돌산갓김치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자체의 특산품이 우선 선정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전국적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여수 돌산갓김치는 지난 8월 돌산읍 죽포리에서 YTN광고 영상 촬영을 마치고 지난 주부터 1일 2회 방송되고 있으며, 앞으로 4개월간 450여회 걸쳐 광고 홍보방송이 나갈 예정이다.
- 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농특산물의 새로운 판로가 생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돌산갓김치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돌산갓(김치)은 지역의 1,142농가에서 913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1,00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효자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다.

*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 ‘기차타고 멜론마을’ 대통령상

- 곡성명품멜론 브랜드 ‘기차타고 멜론마을’이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 곡성멜론은 일교차가 큰 기후에서 재배되어 당도가 높고 사향과 비슷한 특유의 향이 뛰어나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한국멜론을 수입하는 일본 업체 관계자도 일본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 그동안 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화작목인 멜론, 토란, 잎들깨를 명품브랜드 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지원 하였다. 특히 멜론은 농촌진흥청 ‘답과채 생산 시범사업(2010~2011)’을 추진하면서 당도, 크기 등 최고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였다. 또한 ‘고품질 수출멜론 안정생산 사업(2013년, 2015년)’을 지원하여 2014년부터 동남아 등으로 55톤을 수출하였다.
- 더불어 군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벼 윤작 등 꾸준히 흙 살리기를 실천하여 고품질 멜론이 생산되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 이와 함께 곡성멜론주식회사(대표 이선재)에서는 고품질 품종 지정재배와 적기수확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 비파괴당도측정 선별라인을 활용한 공동선별, 백화점 위주 유통시장 개척 등의 노력으로 ‘기차타고 멜론마을’ 브랜드를 국내 최고 멜론브랜드로 육성하였다.
- 앞으로 시험재배 중인 기능성멜론(오메가-3)을 확대 생산하여 맛과 건강까지 고려한 명품브랜드 곡성멜론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부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화순군, 농업인 정보화분야 전라남도 최고 최다입상,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5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5개분야 중 it활용한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등 4개 분야 (최우수 3, 우수 1)를 석권, 농업인 정보화 실력이 전라남도 최고임을 입증했다.
- 이번 대회는 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참여자를 신청, 신청농가에 대한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검증과 더불어 8.17.~8.21.(4일간) 심사위원 심사,평가에 의해 선정되었다.
- 화순군은 정보화 경진 5개분야 중에서 it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경진분야에서 최우수(능주면생활개선회 이미향), it의 선도적 활용 사례 경진분야 최우수(한울농장 배진수), 우수고객관리 프로그램 실천 경진분야 최우수(황금눈썹 장형준), 지역내 정보화 문화 확산 사례 경진분야 우수상(꿀짱 김용근)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도 중요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미리 예측하여 감동을 전달하는 감성 마케팅 등 다양한 sns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e-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명품화순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 장흥군, 여름철 노지쪽과 실증재배 연구 성공 예감

- 읍면 특화작목 육성 시책 일환 실증재배, 년 2~3기작재배 가능 품목 기대 -

- 장흥군(군수 김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노지 쪽과 실증재배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농가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용산면 모산리 김용열씨외 1농가, 0.2ha를 대상으로 생육환경이 불리한 여름철 쪽과 실증재배를 통해 여름재배 가능성을 검증 후 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쪽과 단경기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더욱 의의가 있다
- 이를 위하여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름철 쪽과재배를 위한 씨쪽과 공급, 비닐멀칭, 고온기 차광 및 관수기술 등 여름철 노지 쪽과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생육상황과 수량조사, 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새로운 틈새작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김선우 원예연구담당은 "이번 실증재배 연구 결과에 따라 읍면 특화작목 육성과 다양한 쪽과 재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 신안군, 조직배양 무병 씨감자 생산 본격화 "시감자의 병리적 퇴화방지, 순도유지로 생산비 절감"

-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순도높은 조직배양 무병 씨감자를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관내 감자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조직배양 무병 씨감자는 2기작 품종인 추백으로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기본식물을 분양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에서 계대배양 과정을 거치게 된다.
- 계대배양을 거친 씨감자는 배지경 양액재배를 거쳐 원원종이 되며, 이 원원종을 농가에서 2016년 7월에 분양받아 원종과 보급종을 생산하게 된다.
- 특히 감자는 바이러스병에 전염될 경우 30~50% 수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조직배양 무병 씨감자 생산으로 극복할 수 있다.
- 또한 조직배양 씨감자는 관행재배에 비해 30% 이상 수확량 증수 등 생산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8월 하순 조직배양 씨감자를 파종하였으며 오는 10월 중순경 수확하여 봄감자 조기재배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신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을원)은 “우리군의 감자 재배농가들이 무병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공급에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농식품부, 아랍에미레이트와 할랄식품 분야 협력 본격 추진

- UAE 표준측량청과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 등 할랄식품 협력 구체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8일~19일 양일간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지난 3월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기에 체결한 '한-UAE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제1차 한-UAE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 기 체결한 'MOU 이행과제 협의' 등 양국간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MOU 체결 이후 농식품부는 UAE와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4월에 양국간 협력창구(Focal Points)를 개설하여 업무협약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다.

* 당초 6.12 개최 예정이었던 포럼 등 관련 행사를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UAE측과 협의하여 9월로 연기

□ 먼저 9월 18일 오전에는 농식품부와 UAE 대표단이 할랄식품 업무협약(MOU) 협력과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한다.

○ 지난 3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합의한 과제를 구체화시킨 합의 의사록을 마련하고, 우리측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과 UAE측 압둘라 표준측량청장이 각각 서명할 계획이다.

- 합의의사록에는 할랄식품 정보·기술 공유를 위한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을 양국 교대로 매년 개최, 전통발효식품 할랄인증을 위한 기술 협력, UAE 할랄식품 인증 국제표준화 추진상황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또한 이날, 오후에는 하얏트호텔 리젠시룸(1층)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 GCC 주한 재외공관(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관계자, 식품·외식업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제1차 한-UAE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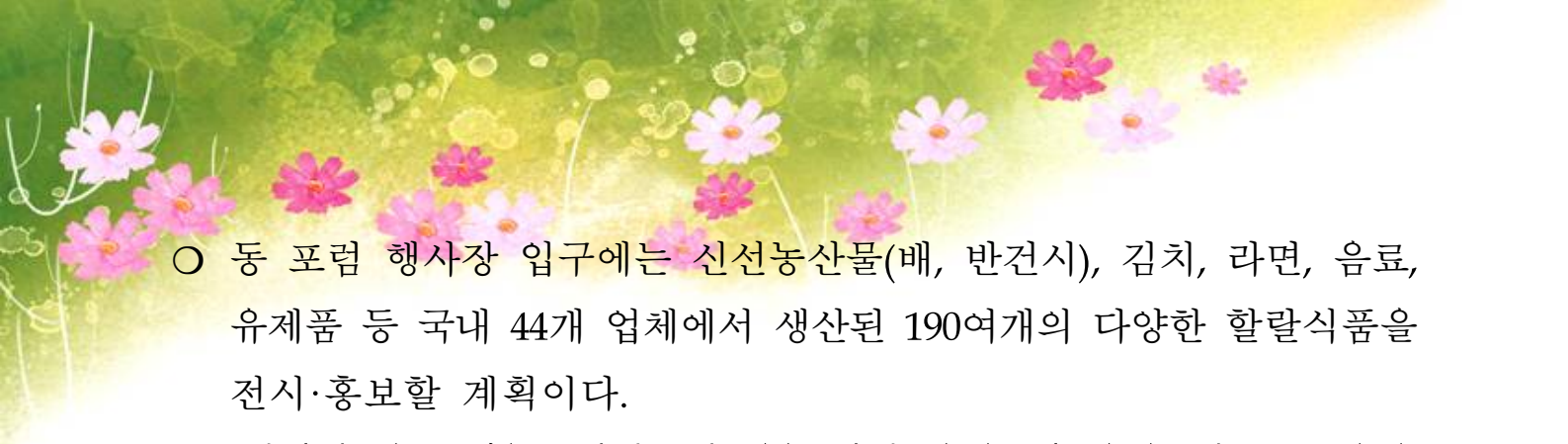
○ 주제 발표에서 UAE 표준측량청은 UAE의 할랄 규정 및 관리제도, 할랄인증 체계 등 UAE 할랄인증제도를, 농식품부는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 UAE 할랄표준을 제정·관리하는 표준측량청장으로부터 직접 할랄인증 획득을 위한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UAE에 할랄식품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식품·외식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UAE는 전 세계 5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이슬람국협력기구(OIC)와 중동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의 할랄식품 인증 표준을 주도하고 있음

○ 한편, 우리측은 지난 6월에 발표한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식품·외식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 주제 발표 이후 양국 정부 관계자, 주UAE 한국대사관 권해룡 대사, 한국이슬람교중앙회·한국식품연구원·(사)할랄협회·식품기업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최근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UAE 등 중동 할랄식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식품·외식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수출 유망품목, 할랄인증 및 시장정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짐으로써 할랄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 동 포럼 행사장 입구에는 신선농산물(배, 반건시), 김치, 라면, 음료, 유제품 등 국내 44개 업체에서 생산된 190여개의 다양한 할랄식품을 전시·홍보할 계획이다.

- * 전시제품(품목수) : 신선농산물(3), 김치류(12), 면류(26), 차·음료류(56), 김류(24), 건강기능식품(30), 기타가공식품(39)

- 9월 19일에는 UAE 표준측량청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간에 상호 교차인정 및 할랄인증 협력 방안 등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단지 내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UAE 대표단과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포럼에 앞서 지난 9월 8일 aT센터에서는 할랄시장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중동·동남아시아 등 할랄시장 바이어(14개 업체)와 국내 농식품 기업(90여개)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가 개최되어 344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둔바 있다.

- 한편, 농식품부는 GCC 등 중동국가들에 대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9월초 UAE 아부다비에 aT 사무소를 설치 하였으며, 내년에는 UAE에 농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 또한, 우리 농식품의 UAE 시장 진출을 위해 UAE 현지 대형 유통 업체인 알마야(AL MAYA)에서 우리 김치, 라면 등 가공식품 판촉전을 10월중에 개최하고,

- * 알마야(AL MAYA) 매장 : UAE 40개(두바이 24, 아부다비 4, 기타 12)

- 11월 26부터 3일간 두바이에서 K-FOOD FAIR를 개최하여 소비 주도층인 젊은층과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체험 및 현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 9월말부터 약 열흘간 국내 호텔 셰프(4명)를 두바이로 파견하여 현지 호텔(CROWNE PLAZA DUBAI) 셰프를 대상으로 한식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호텔에서 한식을 공동조리·오피니언 대상 한식 시식 행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간 식문화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UAE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과 MOU 후속조치 방안 협의 등을 통해 UAE 등 중동국가에 우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UAE 등 중동국가와 할랄 식품 분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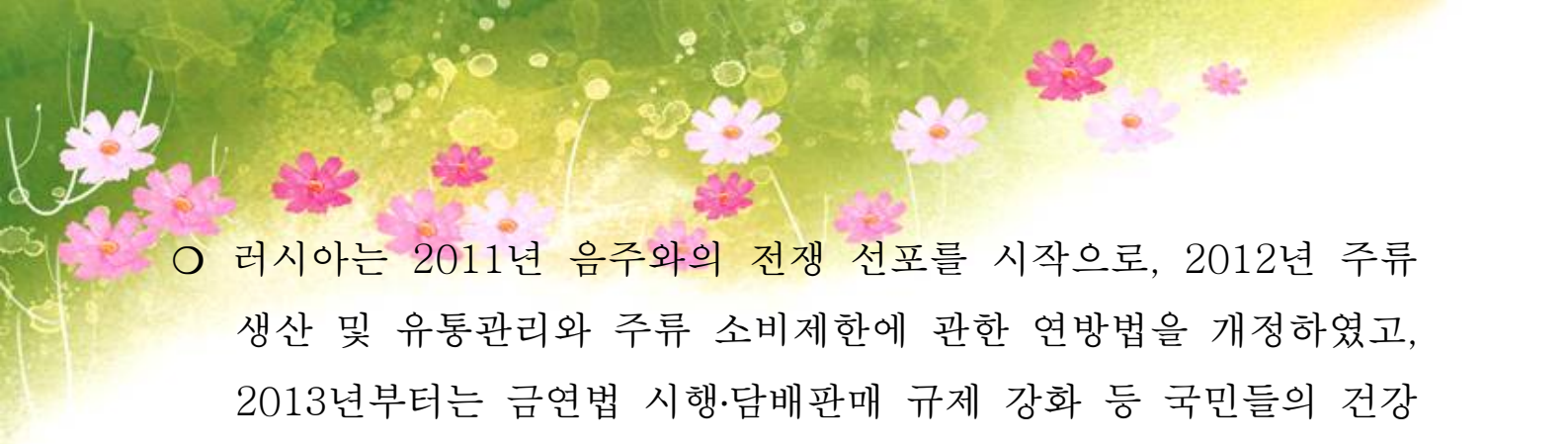
■ 세계로 가는 동양의 건강한 먹거리, 이번엔 러시아로!

- aT 한국관,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한국식품’을 러시아에 전파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한국 식품의 러시아와 CIS 지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이번 주 14~17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2015 모스크바국제식품박람회(World Food Expo 2015)」에 참가한다.

□ 올해로 24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러시아지역 최대의 B2B 전문 식품 박람회로서 러시아와 유럽시장진출을 위한 최적의 교두보로 평가된다. 이번 박람회에 aT는 버섯, 에너지드링크, 스낵, 냉동식품, 장류 등 24개의 수출업체들과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 특히 이번에 aT는 한국관으로 출전하는 품목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요리 시연회를 통해 한국의 건강한 먹거리를 내세워 식재료를 포함한 농식품 수출진출을 노리고 있다.



○ 러시아는 2011년 음주와의 전쟁 선포를 시작으로, 2012년 주류 생산 및 유통관리와 주류 소비제한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였고, 2013년부터는 금연법 시행·담배판매 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러 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식품 트렌드인 ‘웰빙’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모스크바 박람회에서 aT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한국식품’이라는 컨셉으로 KOREA PAVILION을 운영한다. 새송이버섯, 간장과 고추장, 사과칩, 녹차, 두유, 산야초차, 대추, 꽃감, 밤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로 버섯비빔밥, 대추꽃밤죽 등의 요리 시연·시식회를 통해 러시아 소비자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 aT 유충식 식품수출이사는 “그동안 러시아 시장에 한국식품은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진출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인접하여 물류비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소득수준이 높고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한 시장은 수출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한국식품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한국 식문화와 더불어 우리 농식품 알리기를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EU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농식품 금수조치를 취한바 있고, 올해 8월에는 EU의 대러 제재 연장에 동참한 국가를 대상으로 식품금수 조치대상국을 확대했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테슈타인, 우크라이나 등) 이러한 맞대응으로 EU 농가들이 우회수출 방법이나 다른 판매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 내에서는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금번 금수조치를 계기로 수입농산물로부터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유가하락, 서방의 대러 제재, 위안화 평가 절하 등의 영향으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최근 달러당 65루블을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 농식품의 대러 수출액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대러 수출실적 : ('14.7) 147,267천불 \Rightarrow ('15.7) 82,765(43.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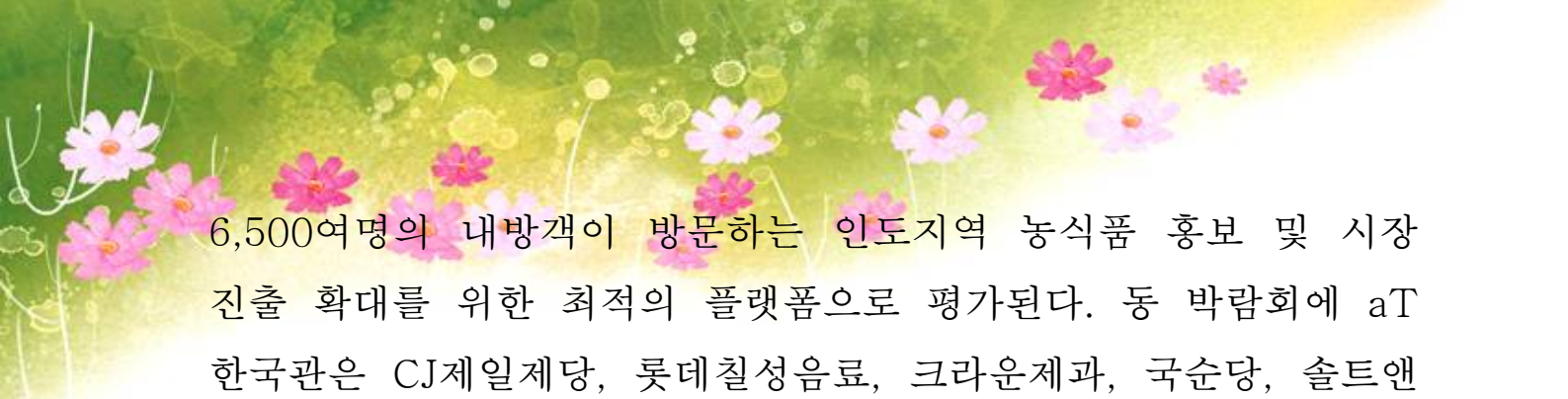
- 하지만 러시아는 척박한 기후환경으로 자국산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가 매우 제한적으로 5~9월에 한정되며 그 외 시기에는 수입 농식품 시장이 활성화 되어 다른나라의 음식문화 수용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번 모스크바 식품박람회의 한국관 참가는 러시아 내 새로운 한국 식품 거래선 발굴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LG-aT Jazz Bar에서 한국의 감성을 맛보세요”

- aT, 2015 뭄바이식품박람회(WOFI 2015)한국관 참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세계 제2대 인구 대국이자 10위의 경제대국인 인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인도 뭄바이 봄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2015 인도 뭄바이식품박람회(World Of Food Inida)」에 참가 중이다.
-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인도는 물론 동남아, 미주 등 전 세계 식품바이어가 찾는 인도 최대의 바이어 전문(B2B)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써, 매년 10여개국, 2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6,500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하는 인도지역 농식품 홍보 및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동 박람회에 aT 한국관은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크라운제과, 국순당, 솔트앤 등 12개 수출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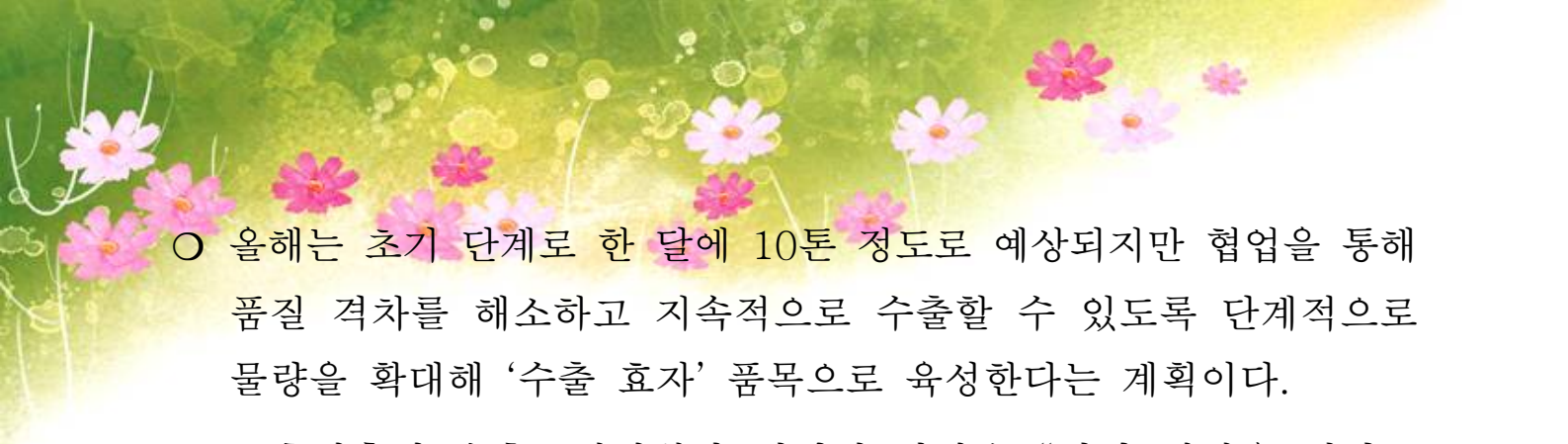
- 이번 박람회에서 aT는 LG전자 인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LG-aT Jazz Bar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내방객들은 LG전자의 우수한 백색가전제품을 체험하는 동시에 막걸리, 음료 등 우리 음료로 직접 만든 칵테일 및 전통 주전부리 시연·시식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되고 세련된 식문화와 전자기술을 체험할 예정이다.
- 또한 LG-aT Jazz Bar 옆에 aT 인포데스크를 식문화홍보관으로 겸용 운영하여 우리 주류문화 외에 우리나라의 뛰어난 먹거리를 인도인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인 3일 동안 오전 오후로 나뉘어 닭강정, 김치전, 비빔밥, 파전, 잡채, 닭불고기 등 여섯 메뉴를 내방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김재수 aT사장은 “인도 뭍바이는 우리 국적기가 취항하는 도시 중 유일하게 한식당이 없는 도시로서 아직 우리 농수산식품이 자리 잡지 못한 시장이지만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에게는 엄청난 블루오션”이라며 “세계 두 번째 인구대국이자 제10위의 경제대국임을 제쳐두더라도, 청장년층이 전체인구의 2/3로 구성되는 등 앞으로 소비 증가 및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더욱이 최근 5년 간 대인도 수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이런 지속적인 수출 수요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켓테스트 및 한국식품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일본 토마토 수출 시장에 다시 켜진 청신호

- 농촌진흥청·전북도청, 손잡고 토마토 수출단지 키운다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전북도청과 협업을 통해 일본 토마토 수출을 위한 수출단지 육성에 나선다.
- 지난 10일 농촌진흥청과 전북도청, 전북농협, 전북 지역 수출 농가와 수출 업체가 손잡고 토마토의 일본 수출 활로를 찾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라북도 토마토 수출사업단’을 출범했다.
- 이번 협업으로 농촌진흥청은 수출에 알맞은 품질 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전북도청은 수출 기반 조성, 수출 업체는 마케팅, 전북농협은 사업 관리 등 기관별로 전문성을 발휘할 계획이다.
- 토마토는 일본에서 소비가 많은 채소 중 하나지만, 농가 고령화와 비용 상승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미국산, 뉴질랜드산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의 재배 기술과 근거리의 이점 등을 활용해 연중 출하 체계를 갖추면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한 전북 지역 6개 시·군(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순창)의 38개 토마토 생산 농가에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수출 안내서, 역량진단표 개발·보급, 현장 기술 상담, 안전성 교육 등을 통해 수출 단계별 품질과 안전성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 참여 농가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약속하고 출하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농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수출단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현재 전북의 토마토 수출은 전국의 2.3% 수준이지만, 9월 말께 장수 지역 물량을 시작으로 본격 일본 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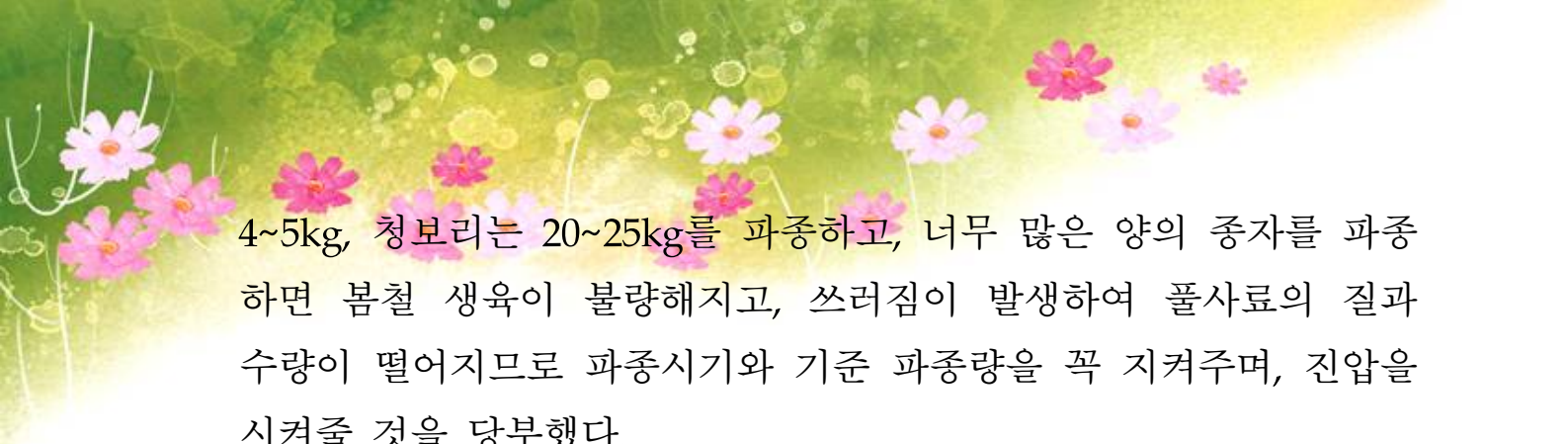
- 
- 올해는 초기 단계로 한 달에 10톤 정도로 예상되지만 협업을 통해 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이병서 과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수출의 어려움인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연중 출하 체계를 구축하는 ‘수출 협업 모델’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 등 수출 시장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9~10월은 월동 사료작물 파종시기

- 전남농업기술원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안내 리플릿 발간 -
- 이탈리아라이그라스 10월 상순, 청보리 10월 하순까지 파종 마쳐야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을 위해 겨울철 주요 사료작물인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와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확대와 초종별 적기 파종을 당부하였다.
- 최근 전라남도는 풀사료 재배면적을 6만ha로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많은 논을 보유하고 있고, 겨울철 기온이 다른 지방보다 따뜻해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 겨울철 대표적인 사료작물은 IRG와 청보리가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 파종기인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하여 파종을 하지 못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풀사료 생산량이 감소한 사례가 있다.
-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RG는 10월 상순까지 파종을 완료해야하며, 파종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벼 수확 10~15일전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하고, 청보리는 10월 하순까지 파종을 완료해야 추위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생육하며, 겨울 추위를 무난히 이겨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
- 한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풀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배를 위해 IRG, 청보리 등 재배기술 리플릿 1만매를 제작해 축산 농가에 보급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박혜량 과장은 IRG 10a당 파종량은



4~5kg, 청보리는 20~25kg를 파종하고, 너무 많은 양의 종자를 파종하면 봄철 생육이 불량해지고, 쓰러짐이 발생하여 풀사료의 질과 수량이 떨어지므로 파종시기와 기준 파종량을 꼭 지켜주며, 진압을 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한다

- 전남도, 30일까지 시군서 접수...5억 원 규모 8개소 내외 선정 -

- 전라남도는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 공모 지원 사업은 생산시설인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와 부대 시설인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등이다.
- 총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늘어난 40억 원이다. 8개소 내외의 단체(법인)를 선정하고, 단체별로 5억 원 내외(보조 60%·자부담 40%)로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2ha 이상 규모화돼 있거나 수출 실적(계획)이 있는 원예·특작분야 생산자 단체(법인)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 예정 부지 관할 시군에 세부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사업 대상자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평가, 3차 공개발표평가를 통해 10월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사업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061-286-6352)나, 시군 원예특작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의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연중 고품질의 원예농산물이 생산·유통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땅심 높이는 풋거름 작물, 9월 하순~10월 상순 파종하세요!

- 헤어리베치, 풋거름 보리 등 풋거름 작물 파종 시기·파종량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하는 풋거름 작물의 지역별 알맞은 파종 시기와 파종량을 소개했다.
- 풋거름 작물은 비료 성분이 풍부한 식물체를 생육 도중에 수확해 양분 공급과 유기물원 등으로 사용하는 작물로 헤어리베치, 풋거름 보리, 호밀 등이 있다.
- 지난해 풋거름 작물의 전국 재배 면적은 31,966ha로 호밀 14,339ha, 헤어리베치 10,426ha, 녹비보리 7,155ha, 들묵새 46ha 정도다.
- 콩과 풋거름 작물인 헤어리베치는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발아가 늦어 잘 자라지 못해 겨울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북부 지역에는 9월 하순, 남부 지역에는 10월 상순까지 파종해야 한다.
- 벼를 심은 논에 파종할 경우 벼 수확 10일 전, 벼 수확 후 로터리 파종을 할 경우 10월 상순까지 파종을 끝내야 한다.
- 일반적인 파종량은 10a당 6kg~9kg 정도며, 10월 이전에 파종하거나 남부 지역의 경우 6kg으로 줄여 파종하고, 보리 등 맥류와 섞어서 파종할 때는 맥류 7kg과 헤어리베치 4kg을 섞어서 파종하면 된다.
- 벼과 풋거름 작물인 풋거름보리는 벼 수확 후 세조파기나 부분경운 파종기로 파종을 하고 중·북부 지역은 9월 하순, 중부 지역은 10월



상순, 남부 지역은 10월 중순까지 과종을 해야 하며, 과종량은 10a당 16kg이다.

- 땅심이 낮은 논에서는 헤어리베치와 보리를 섞어 과종하면 화학비료 대체, 토양 유기물 증대와 뿌리 활력 증진, 토양 개량 효과도 높아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토양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보급 중인 풋거름 작물은 곡우호밀과 영양보리(2008년), 청풍보라(2010년) 등이 있으며, 충남 서천군, 경북 안동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헤어리베치(청풍보라, 41ha) 종자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허성기 과장은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잦기 때문에 풋거름 작물을 과종한 이후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만들어 습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최고품질 벼 '대보' 이삭 팬 후 45일~50일째 수확하세요

- 수확 시기 늦어지면 썩어가기 많이 생기고 품질 떨어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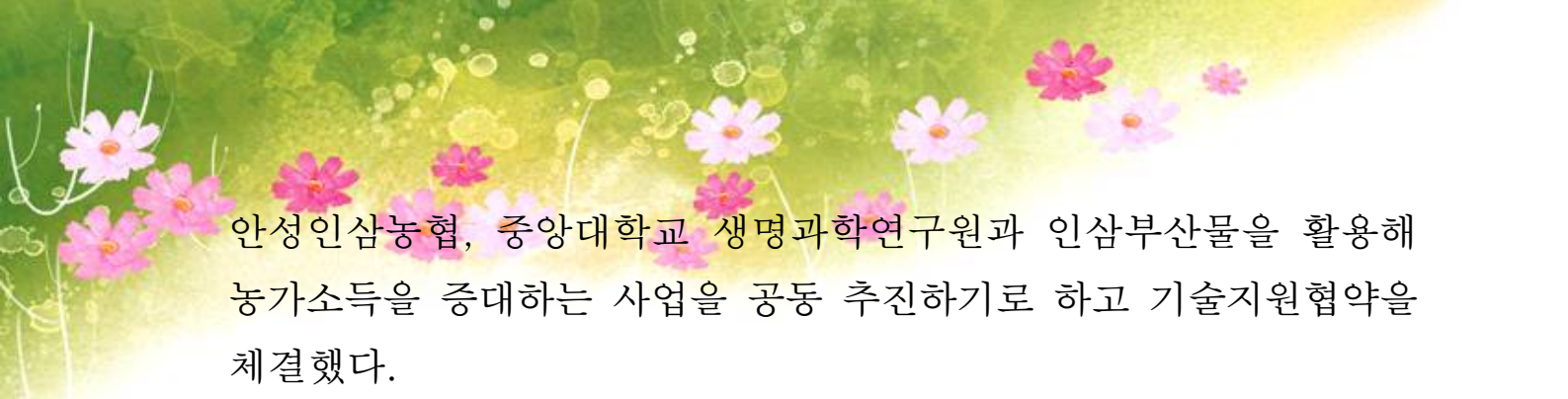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벼 수확기를 맞아 고품질 '대보' 벼의 알맞은 수확 시기를 소개했다.
- '대보'벼는 올해 정부 보급종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다. 2014년 2,257ha에서 올해 13,499ha로 지난해 대비 6배 증가했다.
- 이 벼는 수확 시기가 늦어질수록 썩어가기 발생이 많아져 완전 쌀 비율이 크게 떨어지므로 제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알맞은 수확 시기는 눈으로 보아 한 이삭의 벼 알이 90% 이상 황색으로 변했을 때로, 이삭 팬 후 45일~50일째 수확해야 완전미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이삭 팬 때가 8월 15일이라면, 수확 시기는 45일~50일 이후인 9월 30일~10월 4일이다.
- ‘대보’벼를 이삭 팬 후 일수별로 수확해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이삭 팬 후 60일 이상 늦춰지면 적기보다 싸라기 발생이 10%~25% 늘어 품질이 나빠지고 완전 쌀 수율도 11%~29%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김상열 연구관은 “최고품질 쌀 ‘대보’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 수확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품질 좋은 쌀과 이를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대보는 2011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밥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쌀 수확량 10a당 593kg 정도로 많은 편이며,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쓰러짐에도 강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버려지는 인삼 열매에서 사포닌 뽑는다

- 안성인삼농협-중앙대학교와 인삼부산물 활용 공동 추진 협약 -
- 대부분 버려지는 인삼 열매에서 인삼의 유효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을 추출해 이용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21일 오전 11시 농기원 본관에서



안성인삼농협, 중앙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과 인삼부산물을 활용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도 농기원은 안성인삼농협 관내 안성, 평택, 화성에서 채취되는 인삼 열매를 중간소재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제조공정 최적화와 품질표준화 연구를 맡고, 중앙대학교 생명환경연구원은 주요성분 분석과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을 지원한다.
- 도 농기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삼열매를 이용해 화장품, 의약품, 기능성 음료 소재를 개발해 경기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수출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 농기원에 따르면 3년근부터 맺히는 인삼 열매는 인삼뿌리 발달을 위해 익기 전에 따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삼과 일부 과육이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거나 순액, 농축액으로 시판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버려진다.
- 도 농기원 연구에 따르면 인삼열매 따는 시기를 20~30일 늦추면 열매 과육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1g 당 132mg까지 높아진다. 이는 인삼뿌리 평균 함량인 68mg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열매 따는 시기를 늦춰도 인삼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삼뿌리 수확시기까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경기도농업기술원 임재욱 원장은 “중앙대학교 생명자원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안성인삼조합의 제품개발력이 조화를 이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성인삼조합 박봉순 조합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농협 고객인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해 국민 보건과

경기 서남부 지역의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도 농기원은 이번 사업에 홍삼액 추출 후 대부분 버려지거나 퇴비로 쓰이는 홍삼부산물을 가축 사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삼부산물에는 진세노사이드가 일부 남아있고 단백질도 풍부하다고 도 농기원은 설명했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 여름철 단경기 재배용 시금치 품종 선발

- 썬스타 86.7%, 아소미도리 75.5% 등 높은 발아율 보여 -

- 충남농업기술원은 여름철 단경기 시금치 품종 선발시험을 실시한 결과 ‘썬스타’와 ‘아소미도리’ 품종이 발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시금치의 발아적온은 15~20도로,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철에는 시금치 품종의 발아율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험을 통해 여름철 발아율이 높은 ‘썬스타’와 ‘아소미도리’ 품종을 선발하고 도내 재배농가가 여름철 재배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 시험 결과 썬스타 품종은 86.7%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아소미도리는 75.5%로 다른 품종들에 비해 높은 발아 결과를 보였다.
-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김지광 연구사는 “여름철에 시금치를 재배할 때에는 발아율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고, 35% 이상의 차광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대서 감자, 눈 띄우기 기술개발!

- 봄재배에서 생산한 씨감자를 이용한 가을재배 가능해져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가공용 감자로 인기가 높은 「대서」 품종을 가을에도 재배할 수 있도록 위해 봄 재배에서 생산한 씨감자에 대한 눈 띄우기 기술을 연구한 결과 종래의 110일 이상이 필요한 휴면기간을 78일 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대서」 감자는 전분가가 높아 감자 칩 등의 가공제품을 만들 때 효율이 높고 큰 감자가 많아 달리는 특성이 있어 가공회사와의 계약용 재배 품종으로 인기가 높은 품종이다.
- 하지만 씨감자의 휴면기간이 110일 정도로 길어 3월 하순에 파종하고 6월 하순에 수확하는 봄 재배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고, 가을 재배나 겨울 재배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씨감자를 오랜 기간 저온 저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은 기존의 봄 재배에서 조기 수확한 씨감자를 저온처리를 통해 휴면을 각성시키고 맹아를 유도하면 저장 78일 경에 싹이 나와 8월 하순에는 가을 재배 파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 이 기술의 개발로 봄 재배에서 생산된 씨감자를 그 해 가을 재배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씨감자 생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종래에 봄 재배를 통해서만 생산되던 「대서」 감자를 가을재배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지역의 감자 재배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공용 감자 눈 띄우기 기술 개발을 추진해온 농업기술원 문정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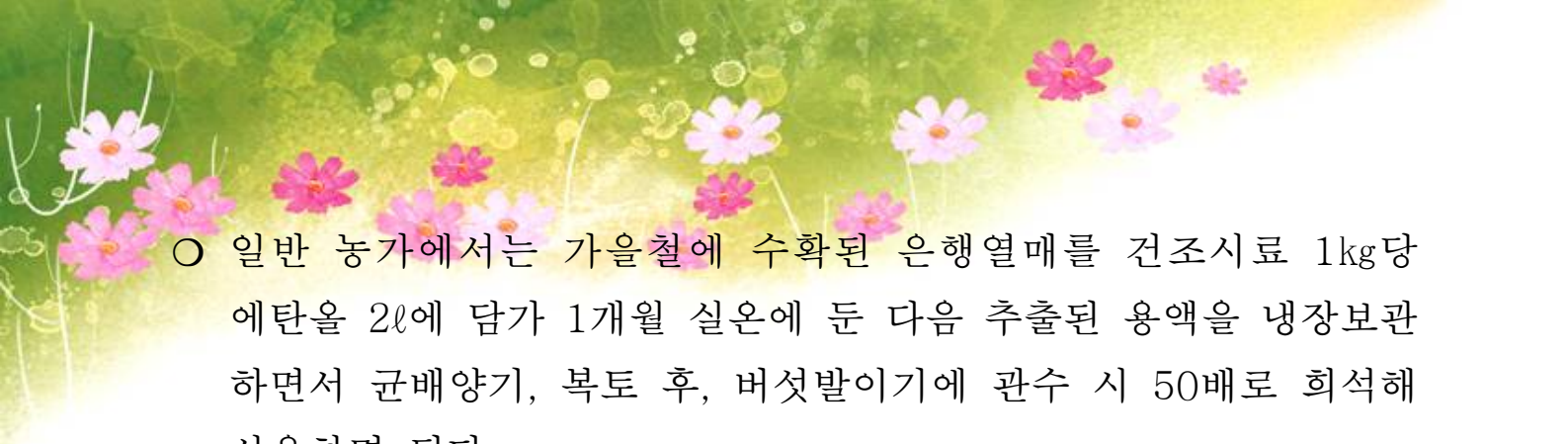
연구사는 “봄 재배에서만 생산하던 대서 감자를 가을 재배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가격이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씨감자 생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은행열매 활용 버섯파리 방제기술 개발

- 도 농업기술원, 은행열매 추출액 제조 및 친환경 방제법 소개 -

- 충남농업기술원은 순천향대 RIC(센터장 송호연)와 공동으로 은행 열매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양송이버섯 재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버섯파리를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 버섯파리는 버섯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수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유충의 경우 버섯 배지를 직접 가해하면서 균사를 절단시키고 심한 경우 버섯 자실체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해 흔적을 남긴다.
- 또 버섯파리 성충은 양송이가 자라는 균상을 옮겨 다니면서 응애나 세균 등의 매개체로 균상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 이 때문에 양송이버섯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품의 품질과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버섯파리 방제가 중요한 일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동안 은행 열매에 있는 빌로발라이드(Bilobalide) 또는 징코라이드(Ginkgolides) 성분을 활용한 버멸구, 진딧물, 응애 등의 살충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보고된 바 있으나, 친환경 재배를 위한 버섯파리 방제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일반 농가에서는 가을철에 수확된 은행열매를 건조시료 1kg당 에탄올 2ℓ에 담가 1개월 실온에 둔 다음 추출된 용액을 냉장보관 하면서 균배양기, 복토 후, 버섯밭이기에 관수 시 50배로 희석해 사용하면 된다.
 - 이를 활용할 경우 버섯파리 방제 효과가 70% 이상으로, 수확량이 13% 이상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 농업기술원 이병주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은행열매 추출물 버섯파리 방제법은 양송이버섯뿐 아니라 느타리 및 표고버섯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제제로도 시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약효 보증기간 지난 고독성 농약 반납하세요

- 전남도, 등록 취소된 디클로르보스 유제 등 9개 품목 전량 폐기키로 -

- 최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이 전량 회수·폐기된다.
- 전라남도는 지난 2011년 12월 6일자로 농촌진흥청에서 공식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 9종’ 등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을 회수해 폐기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고독성 농약 회수·폐기는 농업인 건강 보호는 물론 안전 농산물 생산, 농약 오염으로부터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다.
- 회수·폐기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추진된다. 농가에서 보유한 유효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은 가까운 농협 판매상에 반납하면 생산업체에서 회수해 절차에 따라 폐기된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별도의 고독성 농약 회수·폐기 비용은 없다.
- 회수·폐기 대상 고독성 농약은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된 9개 품목이다. 세부 품목별로는 과수 등 잎말이 나방약제인 디클로르보스유제, 진딧물 약제인 메토밀수화제와 액제, 메티다티온유제, 이피엔유제, 오페토에이트액제, 모노크로토포스액제 등이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친환경농업 1번지’로 자리잡아 왔다”며 “혹여 농가에서 보유한 폐기 대상 약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량 폐기되도록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국제농업박람회서 오감만족 수확체험을

- 조직위, 고구마·땅콩·단감 수확 520가족 선착순 접수 -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 개막하는 '2015국제 농업박람회'의 친환경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농산물수확체험 참가자 사전 접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 농산물 수확체험은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봄부터 경작한 고구마, 땅콩, 단감을 박람회 기간 중 직접 수확하는 체험행사로 총 520가족 2천여 명 규모로 계획됐다.
- 가족단위 친환경 농산물 수확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생생한 농업 현장을 경험하고, 수확의 기쁨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는 수확체험학습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가 신청은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에서 하며 가족단위(4인 1팀)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 체험 참가비는 고구마, 땅콩 수확체험은 5천 원이며, 단감 수확 체험은 1만 5천 원이다. 한 가족 당 한정량을 수확할 수 있으며 당일 가장 크고 무거운 수확물을 가리는 수확물 콘테스트와 직접 수확한 고구마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시식장이 같이 운영된다. 참가비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국제 기아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 이밖에도 편백칩놀이터, 편백목걸이 만들기, 곡옥목걸이 만들기, 월하시곶감각기 등 여러가지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 2015국제농업박람회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재)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오는 10. 15.~11. 1. 까지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나주 소재 전라남도농업 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외국인 3만 5천여 명을 비롯한 7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 벼 40kg(1등급) 기준 5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 수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동일 수준인 52,000원(벼 40kg, 1등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1월) 이전에 농가에 지급하는 가지급금으로서 매입현장에서 바로 지급해 왔다.

○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월에 확정되며, 우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농가에 지급된다.

< '15년산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우선지급금 >

(단위 : 원/조곡, 4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조벼	53,710	52,000	49,690	44,230
산물벼	52,861	51,151	48,841	43,381

※ 포대벼와 산물벼의 가격차 : 포장 제비용 849원(포장재 420, 포장임 429)

○ 농식품부는 현재 쌀값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지만, 금년 우선지급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한 것은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8월 산지쌀값 : ('14) 167,157원/80kg → ('15) 160,112원/80kg(전년 대비 △4.2%)

□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산물벼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시·도가 시·군별 포대벼·산물벼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산물벼 계획량을 최대한 매입*하도록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 최근 3개년 산물벼 매입계획 대비 실적 : 86%

□ 농식품부는 공공비축제도가 '05년 도입되어 10년간 운영되면서 시·도별 물량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그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2016년 공공비축계획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쌀값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하며,

○ 향후 쌀 예상생산량이 발표(10월 중순경)되면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금년 벼 재배면적은 799천ha로 전년 대비 2%감소하였고, 벼 생육상황은 기상여건이 좋아 양호한 수준이다.

□ 금년 정부는 공공비축용 쌀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매입하여 총 39만 톤의 쌀을 매입할 계획이며,

* APTERR(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

○ 공공비축미 매입은 '15.9.23일(수)부터 시작된다.

* 매입일정 : (산물벼) '15.9.23~11.14, (포대벼) '15.10.21~12.31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겨울철 유희 논에 사료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은 올리고! 사료비는 줄이고!

- 벼와 사료작물 이모작 확대로 알찬 결실을 맺는 겨울철 논 활용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조사료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대를 통한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해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참여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먼저, 동계 논 활용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지역내 경종농가, 조사료 경영체, 지역 농·축협,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맞춤형 교육이 추진된다.

- 사업지원내용(시군), 지역별 조사료 재배방법과 효율적 작부체계(농업 기술센터), 경종농가 지원체계(농·축협), 조사료 소득효과 및 지역별 우수사례(우수 조사료경영체) 등 전달교육을 통해 지역내 동계 사료작물 재배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리후렛* 40만부를 제작하여 지자체, 경종농가, 농·축협, 조사료경영체, 경종농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 벼와 사료작물 이모작 확대를 위한 결실을 맺는 겨울철 논 활용법

- 리후렛은 동계 사료작물 재배효과* 및 지원내용**, 권장 사료작물, 재배 적기, 작부체계 등을 사업참여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 경종농가 소득증대(조수익 260만원/ha), 사료비 절감, 국부유출 방지

** 밭직불금 50만원/ha, 고품질액비 살포, 파종·수확·유통 지원체계 구축

- 또한, 경종농가의 동계 사료작물 재배 참여 유도를 확대하기 위해 시군, 농·축협, 조사료경영체, 액비유통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경종농가가 동계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할 경우 시군은 관내 농·축협, 액비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등과 연계하여 종자, 액비 살포 및 파종·수확·유통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조사료 우수품종 육성,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 ‘사일리지 품질경연대회’(10월말) 및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시범

사업) 등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품질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120건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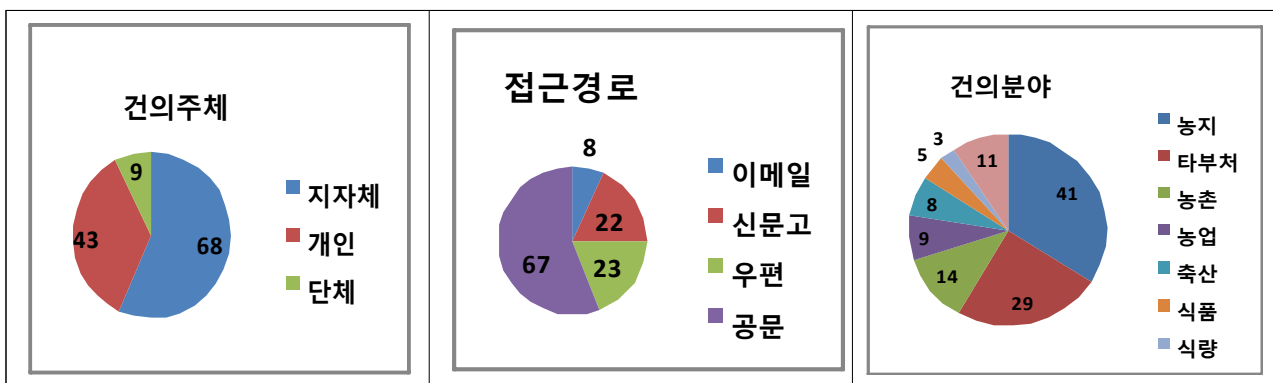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5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통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과제 120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특별공모 참여는 지자체 68건(56.6%), 개인 43건(35.8%), 단체 9건(7.6%)으로 지자체와 개인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건의경로는 인터넷 30건, 우편·공문제출 90건*으로 집계되었다.

* 규제신문고 22건, 이메일 8건, 우편 23건, 공문 67건

○ 분야별로 농지 41건(34.1%), 타부처 29건(24.1%), 농촌 14건(11.7%) 등으로 농지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가장 높고,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으로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건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 농지 41건(34.1%), 타부처 29건(24.1%), 농촌 14건(11.7%), 농업 9건(7.6%), 축산 8건(6.6%), 식품 5건(4.1%), 식량 3건(2.6%), 기타 11건(9.2%)



□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통하여 건의된 총 120건의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검토를 거쳐 10월까지 수용여부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건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산지와 농지의 구분 명확화 필요

- 산지관리법에서는 불법전용산지를 산지로 규정하나 농지법에서는 3년이상 경작시 농지로 규정하여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명확화 필요

② 귀농전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 완화 요청

- 귀농전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 농사를 시작하면 귀농한 것으로 완화

③ 동물약품 유통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제거

- 일반적으로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하나 처방이 적은 약품은 (인체용) 약국에서 구입하여 동물병원에서 처방하고 있음.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④ 가축분뇨의 타 농장 이송처리 허용

- 가축분뇨 처리업자 이외에 타 농가도 충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을 갖추었을 경우 위탁처리를 허용

- 특별공모에 수용과제를 제안한 자에게 외부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하여 11월 중순경 사례금을(A등급 : 30만원, B등급 : 20만원, C등급 :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일본, 베트남산 화훼류 진출 활발

- 일본에서 베트남산 국화, 장미, 호접란 등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10년 간 베트남산 화훼류의 대일수출은 4배 가까이 증가하며
주요 화훼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
- 베트남 화훼산업은 대만, 일본 기업과 함께 최신 생산방법과 냉장
수송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대일수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중산층 수요 개척을 위해 확대되고 있음.
- 일본으로 수입되는 호접란 절화의 경우 묘목산업을 포함 대만산이
주류였으나 최근 대만산이 60%, 베트남산이 40%까지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일본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대일수출된 베트남산 화훼류(구근류,
묘목포함) 수출액은 2014년 기준 약 27억 엔으로 과거 5년 사이
2배 증가하였음.
- 베트남산 화훼수출 증가는 저렴한 가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 절화인 국화의 경우 도쿄오다도매시장에서 1송이 당 거래
가격은 베트남산이 29엔으로 일본산 가격의 절반 수준임. 또한
말레이시아나 중국산에 비해서도 30~40%정도 저렴한 가격에 거래
되고 있음.

- 베트남산 화훼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통구조의 한계가 있음. 대형 생산업체들은 냉장수송으로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 영세업체들은 상온수송에 따른 품질저하로 개선이 필요함.
- 일본 화훼유통 최대 도매업체인 오다화훼는 2017년까지 베트남에 화훼시장을 개설하여 일본에서 요구되는 품질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 베트남 지역에서의 화훼류 생산 및 수출은 일본 내 화훼업체들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는 사업으로 베트남 산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는 상황임.
- 베트남 화훼도매시장 개설은 일본의 우수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시스템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 지원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진출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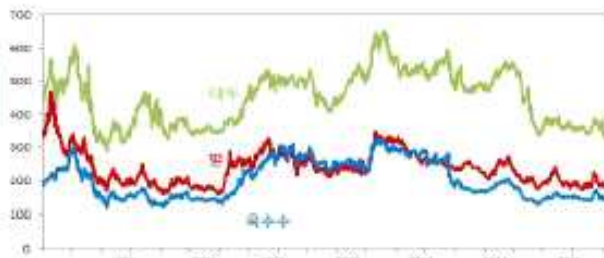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9. 21.(시카고 선물거래소)

수확기 도래로 대두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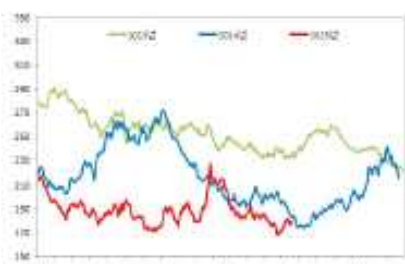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9.18)	전일대비	전월평균 (15.8)	2014 평균
밀	178.79	▲1.1%	183	216
옥수수	148.50	▼0.6%	145	164
대두	318.64	▼1.9%	347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선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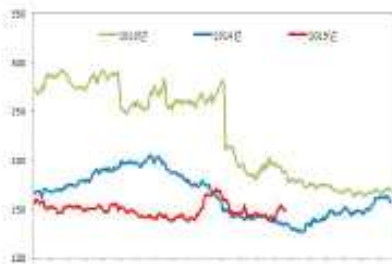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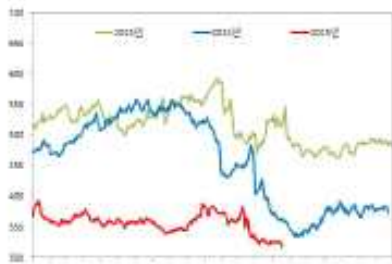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지속적인 공급량 과잉과 달러화 약세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숏커버링으로 인한 강보합세를 보이며 마감함. 이집트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러시아와 수출거래 체결을 진행하였으며 미국산 밀의 경쟁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임.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과잉공급과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함. 중국의 옥수수 구입에 대한 지출도 약 10%가량 삭감해 구매할 것으로 보고되었고, 수출판매 또한 부진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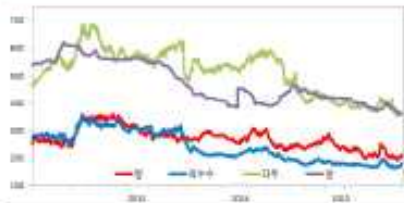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 대두 지역 수확기가 도래가 가격에 하방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여짐. 날씨전망 또한 대두 성숙에 피해를 줄 만한 서리등의 영향 없이 주로 건조한 날씨가 예보되어 대두 품질 또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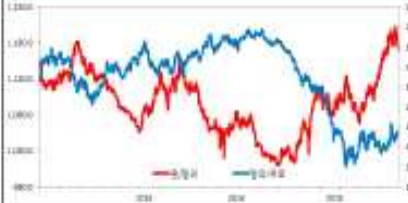
관련동향

- 주요 곡물 가격 환기 시킬 이슈 없이 약보합 마감
- 국제유가는 미 중시 약세, 미 달러화 강세, OPEC 공급 높은 수준 지속 전망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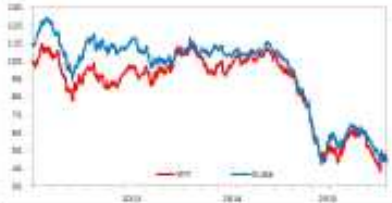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207	▼1.4%		원/달러	1169.7	▼0.8%
	옥수수	175	▼1.1%		달러/유로	1.1414	▲1.3%
	대두	364	▼0.3%		WTI	44.68	▼4.7%
	쌀	360	-		Dubai	45.99	▼1.7%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ST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0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9.17(수출가격), '15.9.18(환율), '15.9.1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 목 적 : 유기인증 농작물 재해피해 시 안정생산 도모
- 가입품목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46품목)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면적 중 유기농면적
-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피해 시 자담 보험료(20%) 전액지원
 - 피해복구비(국고 50%, 지자체 30%, 자담 20%)
 - 보험료 : 품목별·면적별 상이(벼 9만원/ha, 복숭아 450만원/ha)
- 보상기준 :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에 따름
- 신청기관 : 시군, 농협 → 읍면동에 등록
- 가입기간 : 벼·고추 4~5월, 매실·마늘·차 10~11월(재해보험가입기준 참조)

◆ 꽃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 꽃 생활화를 위한 아이디어
-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화환 재사용방지)
- 기타 생활 속에서 꽃 소비 촉진 아이디어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개인 혹은 3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
- 접수기간 : 2015. 10. 12(월) ~ 10. 21(수)
- 접수방법 :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파일 업로드 *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www.kfpc.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10~20매(형식제한 없음), 요약서 A4 1매
- 시상내역 :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변경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개정에 따라 2015년도 8월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함

○ 변경내용

- 변경전 : 소득·재산의 보유 정도와 관계없이 보험료의 28% 정률지원
- 변경후 :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차등지원

○ 변경사유

- 보험료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동일하게 지원함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세대가 더 많이 지원받는 문제개선

※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15.1.28.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5.6.22.개정)···'15. 7. 29. 시행('15. 8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2015년 기준 :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 178원

구 간	보험료부과점수	지 원 내 용	지 원 액
정률지원	1800점 이하	보험료의 28% (기존과 동일)	보험료의 28%
정액지원	1801~2500점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89,760원 정액지원
미 지원	2501점 이상	미 지원	0원

※ 부과점수 확인방법 :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건강보험료 산정안내' 페이지의 '합계' 항목 참고

◆ 수확기 농업기계 교통사고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핸들볼이 빠져 마주오던 차와 충돌(점검 미비)



흐리거나, 야간작업 시 등화장치 점등



음주 후 농기계작업 삼가



수확물 적재는 적정량만 적재



동력예취기의 톱대용 사용 삼가



동력예취기 사용 시 15m이내 접근 삼가



막힌 짚 제거 시 엔진 정지 후 작업



논머리 벼 탈곡 시 콤바인을 정지 후 작업



주간

전남농업정보

5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